

# 사료가격 재조정에 대한 건의서

## 요 지(要旨)

- |   |                                     |
|---|-------------------------------------|
| 1. 국내외 사료 원료가격이 계속 폭등 일부품목 품질 대두박을 비롯한 부원료가격상등 (100%이상) 양륙 옥수수 인숙촉구 : 가격상등요인 가중 | 미 국 38%                             |
| 2. 26.9% 조정가격의 문제점 국산원료가격 양등요인 제외 현재 원료비에도 미달(제조포장비 이윤제외)                       | 일 본 40%(28%+엔화절상 15%감안)<br>자유중국 40% |
| 3. 각국의 배합사료가격 인상(4월 현재)   | 한 국 26.9%                           |
|   | 4. 전망 : 년말까지 해소전망 없음                |
|   | 5. 결론 : 당분간 이윤제한가, 판매가격 재조정 건의      |

우리 사료가공업자 일동은 당국의 저물가 정책에 순응하여 1973년 2월 26일자로 조정된 배합사료 가격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갖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사료생산에 전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연이나 국제적으로 사료원료사정은 날이 거듭될수록 악화되고 천정부지(天井不知)로 가격이 폭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품목은 품질되어 구매(購買)가 어려운 실정이며 국내 대두박 동방산(東邦産)을 비롯하여 모든 단백질사료 가격이 100%이상 계속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월 26일자로 시행된 배합사료가격조정은 국내산 원료의 폭등요인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가격사정이므로 원료비에도 크게 미달되어 적자운영으로 도저히 더 이상 배합사료를 생산할 수 없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당국에서는 수입옥수수 가격보다도 약 40%나 비싼 정부보유 옥수수 인숙촉구하고 있는 바 더욱 적자요인만이 가중되어 배합사료 생산감소현상이 야기(惹起)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은 긴박(緊迫)한 사료사정은 해소될 징후(徵候)가 보이지 않고 더욱 악화일로에 있을뿐만 아니라 년말까지 장기화할 전망으로서 각국의 배합사료가격의 최근의 추세를 보면 원료생산국인 미국에 있어서는 4월까지 38%가 인상되었고 인근 일본에 있어서도 28%인상에 엔화절상 15%까지 감안하면 40%가 인상된 셈이고 자유중국에 있어서도 40%가 인상되었으나 품질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연이나 한국의 사료업자만이 이들보다 불리한 여건하에서 26.9%라는 원료비에도 미달되는 가격으로 배합사료를 생산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이와같이 앞으로 호전(好轉)될 전망이 거이 없는 최악의 국내외적 사료사정하에서 배합사료가격의 현실적인 재인상조처(再引上措處)가 강구되지 않고 배합사료 생산만을 강요한다면 사료업자의 도산은 물론이려니와 국가적으로 일부원료의 낭비와 축산업계에 대한 불신으로 손실(損失)만을 초래하는 결과가 올 것이 뻔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현명(賢明)하신 관계당국(關係當局)에서는 이와같은 불가항력적(不可抗力的)인 역경(逆境)에 처해 있는 업계의 애달픈 하소연을 저버리지 마시고 사실을 냉철(冷徹)히 분석 검토하여 생산공장의 이윤은 당분간 어느정도 제한하더라도 축산업의 기반(基盤)이 되는 배합사료의 지속적(持續的) 생산이 가능하도록 배합사료가격을 재조정하여 주실것을 업자일동 연서(業者一同 連署)로 건의(建議)합니다.

서기 1973년 5월 14일

사료가공업자일동